

우리나라 장수지역 초고령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특성

Soci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Oldest Old in Longevity Belt in Korea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jchoi@snu.ac.kr)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85세 이상(초고령 노인) 비율이 65세 이상(노인인구)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장수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전라도 4군의 남녀 각각 60명 총 120명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한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전반적으로 초고령 노인의 특성을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성별간 차이 및 장수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분석에서 발견된 초고령 노인의 주요특성과 성별차이 및 장수요인은 다음과 같다.

초고령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 보면 종교적 성향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종교적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었고, 가족 구성은 노부부가족과 자녀와의 동거가족 형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에 대한 만족도 및 동거가족에 대한 만족도도 대단히 높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일반적 기대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금연과 금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내었는데 이는 장수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일이나 일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낮지만 일이나 활동을 오래 계속 할수록 장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노인 심리적 특성으로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만족도가 장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성격은 대체로 ①온순함, ②조용함, ③낙천적, ④명랑함 ⑤활발함, ⑥사교적(대인관계 좋음), ⑦자기주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생활에서 특히 자녀나 가족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초고령에서 현실 초월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발견된 초고령 노인의 특성 중 생활만족도 높음, 가족구성에서 노부부가족과 자녀동거 가족을 이룰 가능성 높음, 그리고 활동정도가 높음은 장수지역의 노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장수지역이 농촌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노인의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차이는 여성 응답자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연계된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점과 또한 몇 가지 특성(교육수준, 직업활동/가사활동의 사회활동, 취미활동, 직업 등)은 우리나라 초고령 노인의 사회 문화적 여건에 한정된 특성 또는 사회역사적 특성과 결부된 동년배효과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